

제1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1장 1-11절

찬송: 290장(통412장), 295장(통417장)

간직할 말씀 :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호 1:10).

주제 :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 앞에서

호세아서는 소先知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에 배정된 책입니다. 참고로 소先知서 12권의 배열은 분량의 크기 순서일 뿐 기록연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서지만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은 북이스라엘 예후왕조의 여로보암 2세(794-753 BC)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시기의 특징은 ‘홍망성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지상에서 사라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왕국인데도 현실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및 국토회복과 팽창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합종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바알이 여호와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情夫)와 만나 나눈 사랑을 남편과 나눈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정부도 사랑하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멜’이란 창부(娼婦)로 묘사하였고, 이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호와를 ‘호세아’(‘구원’이란 뜻)로 묘사하였습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심정은 곧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1장은 호세아서의 서론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망할 테지만,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언젠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한 우두머리”(메시아)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호 3:5).

말씀을 나누며

1.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호 1:1).

여기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반면, 여로보암 2세는 선지자 엘리사의 지지를 받아 혁명에 성공한 예후가 세운 왕조의 4대 왕이자 사실상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권을 이어받긴 했지만, 단 6개월 만에 반역을 일으킨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하여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여서인지 혁명이 잦았습니다. 예후(843~815 BC, 왕하 9:1-10:36/재위 28년)는 다윗왕조에 버금가는 힘을 키운 오므리왕조가 추진했던 대내외적 정치노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므리왕조는 북이스라엘을

국제무대에 알렸고, 주변의 소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상아궁(왕상 22:39, 암 3:15)을 세울 만큼 힘 있는 왕조였습니다. 아합과 시돈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 결혼한 것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가 유다왕국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한 것은 막강했던 다윗왕조의 솔로몬이 주변국들과 결혼동맹을 많이 맺은 것과 같습니다. 예후가 주변국들과 외교를 단절한 것은 주변국들이 자신이 혁명을 일으킨 원인인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로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주변 국가들과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아시리아의 봉신국가로 전락하였고, 아람의 공격과 지배로 참담한 지경이 되었으며, 이를 저지할만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후를 이어 16년간 통치한 여호아하스(통치왕하 13:1-9)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크게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여호아하스를 이어 15년간 통치한 요아스(왕하 13:10-13) 때였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요아스를 이어 41년간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794-753 BC, 왕하14:23-29) 때였습니다. 이 호황기에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활발해진 국제 무역으로 백성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파괴된 것들이 복구되었으며, 상아와 도기 등의 사치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아모스는 부자들이 상아로 장식한 겨울 궁과 여름 궁(암 3:15)을 짓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상아로 장식한 침상에 눕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암 6:4-6).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경제적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지만, 그 사회는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철저히 무관심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합종교로 인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신 엘과 여호와, 바알종교와 여호와종교를 혼동하였습니다. 엘과 바알과 아스다롯의 발등상(보좌)이었던 황금송아지가 벤엘 성소와 단 성소에 여호와의 발등상(보좌)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세계의 종교문화를 본뜬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의 발등상으로 제조한 최초의 인물은 아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상 혹은 보좌가 법궤여야 했던 것과 형틀에 부어 만들거나 조각칼로 새겨 만들지 말라는 계명들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송아지(황소)는 가나안의 아버지 신 엘과 바알의 보좌 혹은 발등상이었으므로, 여호와와 엘 혹은 바알과 혼동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바알종교에 끌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은 성창(聖娼)과 몸을 섞을 수 있는 나무그늘(모텔)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성령(聖靈)이신 여호와에게서 멀어졌고,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국제 정세변화를 읽지 못한 외교적 폐착으로 아시리아에 멸망하여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불과 한 세대 앞둔 북이스라엘의 절정기에 선지자 호세아(구원이란 뜻)가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정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성전 지성소의 법궤는 여호와의 발등상(보좌)이었습니다. 또 고대근동의 유물들 중에 신(우상)들이 송아지 등에 올라선 부조들이 있습니다. 백성과 국가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었던 황제나 왕들의 보좌들은 대체로 수호신들인 라마수, 그리핀, 스펅크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법궤 뚜껑 좌우에 두 그룹(케류빔)이 세워졌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는 물론이고, 하늘 성전(계 4장)에도 네 생물 곧

에 넣고 압축한 비황(備荒)식품을 말합니다. ‘디블라임’(Diblain)의 또 다른 뜻은 ‘디바’(dibah, 비방, 나쁜 평판)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모녀가 모두 가십의 대상이었고, 비방을 받거나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향해서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할머니도 음란하고, 어머니도 음란하고, 자녀들도 대를 이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이고 현실이며 운명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화살은 꺾이고, 긍휼(용서)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로 짓게 하였고, 두 번째 태어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사랑받지 못한 자)로 짓게 하였으며,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내 백성이 아님)로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백성이 자기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 혹은 그 기간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음란죄는 열왕기서에 8번 등장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연결됩니다. 열왕기서는 북왕조들의 멸망의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 탓이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와 그의 죄와 동일한 죄를 북이스라엘이 범하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벤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벤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란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음란죄란 것이 성경 66권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알숭배가 크게 성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3.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호 1:10-11).

‘이스르엘’은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 곧 므깃도와 갈멜산과 다볼산 사이에 있는 평원이며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에서 보듯이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르엘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전쟁터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곳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란 곳은 이스르엘 남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므깃도를 말한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진멸시키고 예후왕조를 탄생시킨 곳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의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므리왕조처럼 예후왕조도 몰락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Jezreel)로 짓게 하고 경고하신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태어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Lo-Ruhamah, 사랑받지 못한 자)

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로-루하마’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Lo-Ammi, 내 백성이 아님)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로-암미’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백성이 자기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 혹은 그 기간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언제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고(10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12절)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정리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그 중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나 오류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실패나 오류나 실수 없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하십니다, 미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피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와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회개 여부에 달려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버리거나 멸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왜 하나님을 ‘사랑’(아가페)이라고 말하는지 말해봅시다.
2. 왜 회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지 말해봅시다.
3. 흥망성쇠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제2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2장 1-23절

찬송: 293장(통414장), 294장(통416장)

간직할 말씀 :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호 2:23).

주제 :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 앞에서

2장은 회복을 먼저 말한 후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회개를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포와 저주로 엄포를 놓은 후에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시며 회개를 이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로 보강(補強)하여 물리칠 수 없게 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지옥)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강도를 높여가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천상의 모습은 하늘보좌광과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지복들이고, 지상(지옥)의 모습은 역사의 악순환과 더불어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당하는 재앙들과 저주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천상의 지복을 지상(지옥)의 형벌보다 먼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폭풍 진압사건에서도 예수님은 폭풍을 만나 혼돈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꾸짖어 안정시키기에 앞서 먼저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깨닫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나무라십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란 것을!

말씀을 나누며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호 2:1).

2장 1절은 14-23절에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의 이름을 ‘로-루하마’(Lo-Ruhamah, 사랑받지 못한 자)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였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로-루하마’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셋째의 이름을 ‘로-암미’(Lo-Ammi, 내 백성이 아님)로 짓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로’가 제거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로’는 영어의 ‘not’에 해당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부정이 긍정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며,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감히 우리의 삶에서 ‘not’를 ‘yes’로 바꿔주십니다. ‘아니’를 ‘그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곧 ‘사랑받지 못한 자’가 ‘루하마’ 곧 ‘사랑 받는 자’가 되고, ‘로-암미’ 곧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암미’ 곧 ‘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담이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실질적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혈통만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이방인 여성들이 포함된 것이나 사도 바울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조상’(롬 4:16)으로 이삭을 ‘약속의 씨’(롬 9:8)로 표현한 것이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중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를 희망(Ha-Tikvah)하고 받은 약속 곧 약속의 내용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일컬어 ‘믿음’(emunah, 신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최초로 쓰인

것은 아브라함에게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pistis, 신뢰)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와 같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나이 75세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민족의 제1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가 제1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버렸고 이집트의 노예 때처럼 다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제2메시아가 와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주길 지금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제2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건재했었고 멸망은 상상조차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호세아에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크게 있었다기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응보)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역사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세아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강하고 믿었던(emunah)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2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이미 2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pistis) 것이 모든 상실로부터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상실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그것들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모르게 되찾고 더욱 넘치게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음행을 제하게 하라”(호 2:2-13).

2절은 조국의 안녕을 위해 회개를 외치라는 권면입니다. 나머지 3-13절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응보를 받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호세아의 모국(母國) 또는 조국(祖國)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음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우상숭배 곧 바알 숭배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에 비유되었고 바알은 이스라엘의 정부(情夫)에 비유되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였습니다. 계시록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고 거듭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회개하면 천국시대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써 ‘다가올 세상’(Olam Ha-Ba)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세상’은 ‘모쉬아크’(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꿔서 부르는 호칭)가 오셔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과거 2천 년간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를 발음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하나님나라’를 ‘하늘나라’라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회발음이 16세기에 만들어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자음 ‘YHWH’에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의 모음을 붙여서 탄생시킨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야훼’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후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발음하지 않고 있고,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회개하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외침이자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아니고 나라가 강조되었는가 하면 유대교는 민족종교이고 국가차원에서 하나님의 613개 계명을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이외의 다른 신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외의 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고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들을 우선시 하거나 숭배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돌과 나무에 새기거나 조각하거나 주물로 떠낸 것을 섬기고 절하거나 돈과 명예와 권세와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는 것도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13절은 그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은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빛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맡기신 것들을 모두 되찾고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간 주셨던 건실한 경제, 튼튼한 국방, 자유와 평화, 왕권과 국가의 발전과 번영까지 모든 것을 되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거지가 되고 강대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패망하며 적국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리고 마는 것입니다.

3.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호 2:14-23).

14-2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시대 곧 다가올 세상(올라오 하바)를 약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 에덴동산시대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셨던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같은 세상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

하셨습니다.

15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에서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유다의 북쪽, 베냐민의 남쪽 땅이 맞닿는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전리품을 감춘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 묻힌 장소입니다(수 7:24-26). 아골 골짜기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묻힌 곳이었는데(수 7:24-26; 겔 37:1), 호세아보다는 조금 늦은 그러나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소떼가 눕는” 풍요한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사 65:10). 호세아 역시 이스라엘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므로 ‘괴로운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서신 2장에서 천명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맞닿아 있습니다.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을 마치며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종교의 자유가 담긴 직후인 1800년 초에 미국 서부(오하이오 강 주변) 개척지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종교개혁가 토마스 캠벨, 알렉산더 캠벨, 윌터 스콧은 다섯 손가락 실천이란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실천이란 첫째 믿고, 둘째 회개하고, 셋째 신앙고백하고, 넷째 침례 받고, 다섯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신앙고백은 믿음의 내용을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후회하며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증인들 앞에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거듭나는 구원의 표입니다(벧전 3:21).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주동거(內住同居, indwelling)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뤄집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메시지는 성경 66권 전체에 담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는 최우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2.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을 말해봅시다.
3. 삭개오의 회개에는 열매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제3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3장 1-5절

찬송: 300장(통406장), 301장(통460장)

간직할 말씀 :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호 3:5).

주제 :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 앞에서

3장은 다섯 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장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진액이 담겨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1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뜨겁고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은 열다섯 개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아내 고멜을 되찾아 오며 느낀 아픔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절절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간절한 애정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애정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고멜의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행과 하나님과의 언약(하나님의 계명)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준비하신 값진 선물, 곧 ‘최후 승리’, ‘최후 영광’, ‘최후 금관’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5절)는 말씀이자 성도들의 ‘그 희망’(Ha-Tikvah)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호 3:1).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은 각각 다른 행위가 아니라 동일한 행위입니다. 바알 신 제의(祭儀)에서 음행이 이뤄졌기 때문인데, “건포도 과자”는 포도주가 그렇듯이 제의에 쓰였을 뿐 아니라, 최음제(aphrodisiac)를 뜻한 것일 수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신국 제역(NIV)에는 건포도 앞에 “신성한”(sacred)이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비유대인들이 만든 포도주와 포도제품들의 사용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음식법을 ‘카샤룻’(Kashrut)이라 부릅니다. 카샤룻은 비유대인들이 만든 포도주, 포도주스, 포도주스로 단맛을 낸 과일음료와 과일 맛 음료, 심지어 베이킹과 우더의 사용도 금합니다. 포도가 이방종교 특히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와 같은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건포도를 틀에 넣고 압축한 케이크를 말합니다(아가 2:5). 건포도 과자는 고대 근동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는데 다산(多産)의식에서 더욱 그랬다고 합니다(사

16:7). 게다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건포도 과자가 축제 기간에 최음제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다윗 왕이 법궤를 되찾고 기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들에게 빵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혹은 대추야자 과자)과 건포도 과자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낸 것(삼하 6:19)을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옳든 그르든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세트로 묶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계약관계입니다. 여기서 계약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Torah) 곧 계명(율법)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도 계약이 깨질 때 불행이 닥칩니다. 죄는 계약이 깨질 때 파생되는 불편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약속이 깨지면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인간의 마음속에 수치심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관계가 깨지면 서로 마주 대하기가 싫게 되고, 대화가 끊기게 되니까 불안해지면서 오해와 미움과 증오심이 끊어 오르게 되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원수된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리 사랑’과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불편해진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죄 없는 하나님이 먼저 솔선해서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물(희생, Sacrifice) 곧 선물(Gift)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해원상생이 이뤄진 상태를 성경말씀은 ‘화목된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화해하시려고 솔선해서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인간끼리의 삶 속에서 화목케 하는 자(Peacemaker)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조차도 사단이 잘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깨끗하게 쓸리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이 잠시 그것들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한 이유와 무한한 사랑 때문에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조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호 3:2-3).

고멜은 바람둥이 여성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은 후에 가출하여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까? 고멜은 바알산당에서 몸을 파는 성창(聖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고멜은 가출하여 지참금을 받고 중혼(重婚)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고멜은 저자거리에 끌려나와 투석형을 받고 처참하게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열다섯 개(세겔)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되사왔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은 세겔 30개에 팔리신 것에 일치하고 있음을 봅니다.

“반 호멜”에서 “반”은 히브리어로 ‘레텍’(lethek)으로써 구약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탈무드의 기초인 미쉬나(Mishnah)에 따르면, ‘레텍’은 반 호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금액으로 은 세겔 열다섯 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은 세겔을 열다섯 개만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절반을 보리로 보상한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30개의 세겔을 지불한 이유는 고멜의 정부(情夫)가 고멜의 부친이나 고멜에게 지불한 지참금을 되돌려줘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참금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고멜의 경우에서 보듯이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돈을 이스라엘에서는 ‘모하르’(mohar)라고 불렀습니다(창 34:12, 출 22:16, 삼상 18:25). 반대로 여자가 남자 쪽에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이혼을 원하거나 버리기를 원하면 지참금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정부에게 돌려준 돈의 가치는 은 세겔 30개에 해당되었습니다. 은 세겔 30개는 노예의 몸값(출 21:32)이었습니다. 모든 고대문명권에서 여성들은 결코 권리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율법 아래서 여성은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남편이 양과 염소 떼를 소유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바알(Ba'al) 또는 아돈(Adon)이라 불렀는데, 모두 주인(master)이란 뜻입니다(창 20:3, 18:12, 출 21:3, 33, 신 21:13, 22:22, 24:1, 삼하 11:26, 잠 12:4). 남편은 부인을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었지만, 부인은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몸값 혹은 결혼하는 여성에게 주는 ‘모하르’(mohar)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노예 값에 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하르’가 돈으로 여자를 사는 경우라면 남자는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되팔 수 있었습니다(출 21:7-11). 호세아가 돈을 돌려주고 고멜을 데려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짐하며 타일렀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 권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타이르는 말씀입니다.

3.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호 3:4-5).

4-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장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자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복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진단됩니다. 하나는 혼합종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 특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대의 이사야, 우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국제정세의 흐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민족이 벼랑 끝에 놓였다는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북분열왕국들이 모두 멸망한 것은 이들 예언자들의 정책조언과 회개촉구를 지도자들이 묵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지도자들이 국제정세(國際情勢)를 잘못 판단했거나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실리외교를 펼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분열왕국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처한 국제상황은 구한말 조선이 처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당대의 패권국가인 아시리아에 등을 돌림으로써 남유다는 바벨론에 등을 돌림으로써 각각 패망하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젊은 호랑이 아시리아(지금의 이라크지역)의 서진정책을 막기 위해서 늙은 호랑이 아람(지금의 시리아지역)과 동맹을 맺고, 주변국들인 모압, 암몬, 에돔, 남유다왕국에 사신을 보내 동맹에 가입할 것을 압박하며 보복침략까지 하였으나 결국은 아시리아에 점령당한 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젊은 호랑이 아시리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고, 유다왕 아하스(731-716 BC)가 아시리아의 우상과 문물들에 영향을 받아 이방신을 섬기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며, 성전기구들을 훼손하고, 성전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시리아로부터 살아남은 남유다는 한 세기 후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신흥패권국가인 바벨론을 등지고 종이호랑이로 변한 이집트에 의존함으로써 패망하였습니다. 유다 왕과 신하들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예언과 충고를 무시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하여 이후 6백년간 대국들의 속주신세를 벗지 못하였으며, 주후 70년에 로마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후대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답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근거로 예언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당대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읽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자들의 희망의 근거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있었다는 점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곧 남편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마음을 쓰는 것은 음행이자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고가 아파트입니까, 수입 자동차입니까?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약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은 30개 세겔에 팔리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세아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되사온 후에 말하기를 ‘이제는 변치 말자. 좌도 우도 바라보지 말고, 서로만 바로 보자’고 한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유대인들은 왜 아브라함 이후 오늘날까지 수천 년간 ‘그 희망’(Ha-Tikvah)을 노래하는지 말해 봅시다.
2. 하나님의 절절하고 신실한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나눠봅시다.
3. 나를 호세아에 대입시키지 말고 고멜에 대입시켜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시다.

제4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4장 1-19절

찬송: 302장(통408장), 303장(통403장)

간직할 말씀 :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호 4:14).

주제 :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말씀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혼합종교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같은 문제점이 상존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특히 더 심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단 하나 예루살렘의 성전산(모리아산)에 세워진 것만 합법으로 인정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유다의 종교이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 중앙 성소는 북이스라엘의 땅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에 있었고, 성막과 법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주전 1102년경 아백 전투 때 블레셋에 빼앗겼고 일곱 달 정도 블레셋 성읍들(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있다가 남유다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삼상 6장).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거대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충돌을 절묘하게 피하면서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간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북 왕국에서 남 왕국으로 옮겨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사망한 직후 왕국이 분열되었고, 법궤가 없는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대신할 하나님의 발등상(보좌)으로 황금송아지를 최남단 뱀엘과 최북단 단 두 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송아지 또는 황소는 본래 엘과 바알 및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으므로 백성은 알게 모르게 엘과 여호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겼고 그런 행위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의식이 점차 흐려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은 가나안의 아버지 신 엘(El)과 어미 신 아세라(Asherah)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바알(Baal)과 아스다롯(Astaroth)과 아낫(Anath)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스다롯과 아낫은 바알의 누이들이자 부인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정액)와 폭풍의 신이며, 아스다롯은 땅(자궁)의 풍요와 생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 성격의 바알종교 의식의 절정은 바알 신 부부를 성적으로 자극시켜 척박한 땅에 비(정액)를 내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배자들이 남녀 성창들과 간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육적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4장은 바알산당의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호 4:1-5).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1-2계명,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1-5절의 하나님의 응보는 이들 계명을 어긴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상(形狀)들로 열 가지 ‘세피롯’(sefirot 대상 29:11)을 말하곤 합니다. 이 열 가지 가운데 마지막 열 번째가 유일한 물질세계인 ‘나라’(Malkut)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모두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5절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에서 “네 어머니”는 ‘나라’(Malkut)를 말하고 “멸하리라”는 계명을 어긴 죄값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에 613개의 계명들이 있고, 그 가운데 248개가 ‘~하라’는 계명들이며,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613개의 계명들과 이 계명들이 깨지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명 ‘게자이로트’(Gezairoth)라 불리는 율타리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 혹은 “규례”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에는 안식일 법, 손 씻기 법, 그릇 씻기 법, 정결법 등 다수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는 ‘미슈나’(Mishnah)라 불린 구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주석을 담고 있는 책이 탈무드(Talmud, AD 200-500)이고, “계명과 규례”를 부르는 통칭이 ‘토라’(torah)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이 토라를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실천종교입니다. 그것만이 깨진 ‘나라’(Malkut)와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는 교리(dogma)서도 신앙고백서도 없습니다.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유대교 신앙은 AD 12세기의 유대교 랍비 람밤(Rambam, Maimonides)이 정리한 열 세 개의 믿음의 원리들뿐입니다. 이들 중 첫 다섯 개가 “1)하나님은 존재하신다. 2)하나님은 한분이시고 유일하시다. 3)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 4)하나님은 영원하시다. 5)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고 다른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교를 부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 4:6-10).

4-6절은 1-5절의 연속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는 계명을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에 연결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와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 죄하니”는 역사적 사실로써 인류역사의 악순환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힘써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등 따습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애써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합니다. 1970-80년대까지 춥고 배고팠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교의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들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대국이 되고 GNP 3만 불을 넘긴 시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분열된 가장 큰 이유는 다윗왕국이 너무 잘 나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웃국가들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동맹을 맺었습니다. 공주들은 자기 나라의 신들과 사제들을 대동하였고, 솔로몬은 그들이 머물 집과 그들의 신들을 모실 성소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 신들의 성소들에 포위당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무너뜨린 오므리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므리왕조 때 북이스라엘은 탄탄한 국방과 경제로 인하여 국제무대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오므리왕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촉발시킨 예후 혁명 때 씨가 말렸습니다. 혁명으로 정권을 쥔 예후왕조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단절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국력이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 때 국력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호세아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시 사치와 방탕과 혼합종교가 문제되었습니다. 향락과 방탕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서 쇠퇴(衰亡)의 시점을 우상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때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흥성(興盛)의 시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때로 보았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호 4:11-19).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에서 “나무” 혹은 “막대기”는 ‘아세라’ 목신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에 우상과 아세라 상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왕상 14:23) 여기서 아세라 상은 목신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승 곧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한 쌍을 수호신으로 마을 입구에 세웠던 것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고, 그곳에 목상들이 있었습니다(왕하 16:4; 17:10). 또 ‘엘’(El)이 가나안의 최고신이었던면,

‘아세라’(Asherah)는 ‘산당’ 그 자체였다고도 합니다.

호세아는 13절에서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서에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말하면서 그 나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분향하던 곳이 ‘산꼭대기’나 ‘작은 산 위’였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가 다른 아닌 성장들과 몸을 섞는 러브 모텔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실제적 이유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때의 음행은 기우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최고신 엘은 산당인 아세라 한테서 바알(Baal)과 아스다룻과 아낫(Anath)을 낳았습니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 아스다룻과 전쟁의 여신 아낫은 자매로서 오빠인 바알의 부인들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를 의미하며, 하늘의 폭풍,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자, 척박한 근동에 비를 뿌리는 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다룻은 바알로부터 비를 받아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룻이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산당의 나무그늘 아래에서 사제(성장)들과 살을 섞곤 하였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룻을 자극하여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막에서의 떠돌이 삶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 바알종교에 심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우상도 없고, 여신도 없고, 신화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단지 율법(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룻의 숭배는 오늘의 흥등가처럼 매우 자극적이었을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에서 “벳아웬”은 사악함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의 집 ‘벳엘’이 사악함의 집 곧 ‘벳아웬’으로 바뀌었고 말았습니다. 빛을 흑암으로 질서를 혼돈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고 말았습니다. 벳엘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유일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발등상(보좌)인 법궤를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세운 곳입니다. 호세아가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곧 사악함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벳엘이 혼합종교의 온상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변하여 우상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좇아가면 하나님의 집이 변하여 사악한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귀신들이 들어왔게 됩니다. 빛이 변하여 어둠이 되고, 질서가 변하여 혼돈이 되며, 생명이 변하여 죽음이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요일 3:8)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

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북이스라엘의 혼합종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일왕국을 쪼개면서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남단 벧엘과 최북단 단의 성소에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으로 황금송아지를 세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성전 지성소의 법궤가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이었으므로 벧엘과 단의 성소에 법궤 대신에 황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송아지(황소)는 가나안의 최고신 엘과 바알 및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애굽이후 백성은 가나안의 최고신 엘과 여호와를 혼용(混用)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출범하면서 벧엘과 단 성소들에 세워진 황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치위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 예후 때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여호와를 볼 수 없으므로 황금송아지만 보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와 보좌인 법궤는 성전 지성소에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일 년 중 하루 대속죄일(보통은 우리나라 추석 5일전) 때 두 번 정도 법궤 앞에 설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아세라 목상과 바알과 아스다롯에 끌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알산당에서는 성창(聖娼)과 몸을 쉬을 수 있는 나무그늘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성령(聖靈)이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갔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바알송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관해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와 진실한 믿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왜 조건적인지를 계명과 연관시켜 생각해봅시다.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3.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상의 우상들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제5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5장 1-15절

찬송: 305장(통405장), 308장

간직할 말씀 :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호 5:15).

주제 :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 앞에서

거듭된 강조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책임만 있지 않고 친밀감과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광대하시고 무조건적이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나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이며 순수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마디로만 설명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많은 사랑과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동거의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과 신앙고백이 하나로 연결되고 회개와 침례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믿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마음에 우상을 두는 행위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겠지만,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효험이 좋은 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호 5:1-2).

1절 전반 절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에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왕상 12:31, 대하 11:13-17, 13:9)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을 퇴출시키고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은 아마도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들이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세운 성소들에서 섬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보를 예고하시며 가장 먼저 지칭한 자들이 바로 이들 가짜 제사장들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과 초막절 절기를 한 달 늦춘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모두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이외의 산당은 불법 성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성막과 법궤를 안치한 중앙 성소가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중앙 성소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마저 목숨을 잃음으로써 폐쇄된 이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임시 성소 몇 곳이 베냐민 지역에 있었을 뿐입니다. ‘놉’에 하나 있었고, 대제사장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이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엘리의 증손자)으로부터 거룩한 떡(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받았습니(삼상 21:1-6). ‘기브온’ 산당에도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에브라임의 실로에 있었던 성막과 놋제단이 있었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수 18:25, 대하 1:2-6). 블레셋 지역에서 되돌아온 법궤는 ‘기랴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베냐민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써 유다지파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과 법궤가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두 거대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의 직접적인 충돌을 완충하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로 모두 옮겨졌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왕권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에브라임과의 충돌 없이 베냐민을 거쳐 모두 남유다로 옮겨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차별화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성소, 불법 제사장, 불법 절기라는 죄를 범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백년 넘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회개를 촉구하시며 심판을 거듭 예고하셨습니다.

1절 후반 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는 한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고 구원하셨던 장소들이 그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올무가 되고 그물망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심으로 인하여 빛이 어둠으로 질서가 혼돈으로 생명이 죽음이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활동무대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에벤에셀’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비적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삼상 7:5-12). 또 다불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해발 588미터 산입니다. 다윗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청동 문명권에 속했고,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권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맞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은 교묘히 약한 고리아자 두 거대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의 완충지 베냐민을 점령하여 기지로 삼고 호시탐탐 에브라임과 유다를 괴롭히며 실효적 지배를 꾀하였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2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블레셋이 동원한 철병거가 무려 900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인들의 무기는 고작 농기구 정도였습니다. 사울 때를 보면 철로 베틀 칼이 고작 한 자루나 두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전의 원인을 몇 가지로 짚어보자면,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대가 높은 다불산에서 블레셋을 맞아 싸웠습니다. 철병거가 다불산 전면에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엄청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산 오르막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의 한 소절인 5장 4-5절 곧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에 연결됩니다. 블레셋의 병거들이 산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폭우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어마 무시한 천둥과 번개와 폭우에 900마리의 말들이 놀라 혼비백산하며 뒤엎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추격전을 펼쳐 블레셋을 전멸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힘이나 능이나 전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삿 4:3)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 장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떠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는 올무가 되고 그물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다불산은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구한 두 영웅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심으로써 자신이 오실 자 메시아임을 증명한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올무와 그물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2.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호 5:3-7).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다름 아닌 회개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은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혐오하는 인간’은 오만(Hybris)한 자로서 반드시 신들의 응보(Nemesis)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신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자신이 조각한 석상을 사람이 되게 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고, 테바이의 왕비 니오베는 신을 무시하고 오만함으로 평소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고 원망과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석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5절의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한 예후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절정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남유다가 내리막을 걸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에 멸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사후 쇠락의 길을 걸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란 호칭은 북이스라엘을 대체한 호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심히 약하고 힘없는 베냐민을 완충지로 두고 남유다와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37번이나 에브라임으로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알이 밝혔습니다. 거듭된 말이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족이든 서민이든 노예이든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와의 발등상 혹은 보좌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근동세계에서는 짐승들 특히 소가 신들의 발등상이었습니다. 그 같은 부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라마수, 스펡크스, 그리핀은 국가와 황실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쿠데타가 잦았고, 여러 차례 종교개혁도 있었지만, 황금송아지 성소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죄의식도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역으로 수입한 상아로 장식한 궁궐과 별장이 건축되었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과의 결혼동맹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들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사치와 향락을 당연시하며,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타 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5-7절을 풀어쓰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달려갔으며, 회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났고,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와 땅과 자식과 재물을 모두 잃고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다.”

3.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호 5:8-15).

호세아 5장은 북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8절 전반 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는 9장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와 10장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에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이나 대속죄일과 같은 명절에 뿔나팔을 불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쟁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송수신기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나팔과 깃발이 전쟁의 시작과 끝 또는 전진과 후퇴 등을 알리는 중요 수단이었습니다.

기브아(Gibeah)는 히브리어로 ‘산’ 또는 ‘언덕’이라는 뜻으로써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주거지로서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정치적인 수도 역할을 하였습니다(삼상 10:26, 삼상 22:6). 기브아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병목지역이므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인 사건으로 인해 기브아는 지파동맹과의 전쟁에서 철저히 응징을 당하여 베냐민 지파 자체가 멸절될 위기에까지 놓였던 곳이기도 합니다(삿 19-20장). 이 사건의 전말(顛末)은 이렇습니다. 기브아에서 변태성욕자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자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어 열두 지파에게 보내어 기브아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분노한 지파들이 동맹하여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였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했었습니다(삿 21:8-9). 지파동맹연합이 남자 600명만 남기고 진멸시킨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염려하여 처녀들을 구해주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삿 21:1)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 600명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북안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한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모조리 죽이고 처녀만 400명을 잡아와 숨여 지내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고 그들과 평화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명절축제 때 춤추는 여자들을 보쌌 하여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가 남녀 600쌍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호세아는 8-14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부패와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기브아가 당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호 9:9, 호 10:9). 기브아는 남유다에, 라마(Rama)와 벵아웬(벵엘)은 북이스라엘에 속했으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호 5:15)는 5장의 핵심 구절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에서 보듯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 살면,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조차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아직 육체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구원(부활)은 이미 이뤄졌지만, 육체구원(부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육체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내주동거하게 하시면서 자녀들의 미래구원을 보증하시고 도장 찍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미래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든, 자기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든,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이든, 신령한 몸을 덧입기까지는 어

는 누구라도 육체로 인한 고통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미래구원 곧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인내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시련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죄인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사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와 고난이 존재하는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책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영적으로 부부가 된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계명, 토라,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랍비들의 오랜 생각이자 가르침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모세오경에 총 613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라’가 248개이고 ‘~하지 말라’가 365개인데, 이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쇠하고 망했다는 것이고, 성하고 흥하려면 이것들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믿거나 영적인 문제를 따진다거나 하는 것은 유대교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실천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의 믿음(Emunah)은 하나님과의 계약(계명, 율법, 토라)을 믿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계약은 구약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모든 활동 곧 하나님의 뜻의 대언, 민족사의 성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확신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담긴 축복과 저주가 조건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글로 남겨진 오늘날에는 이 성경 특히 오경이 유대교인들에게는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Pistis)은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에 관한 진술 곧 신앙(교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천 년간 수많은 신앙토론이 있었고, 많은 신앙고백서들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학서적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신학적 이해차이가 항상 있어왔을지라도, 신약성경만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신약성경 속에는 구약성경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과 이해가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을 기꺼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아주 버렸다거나 아주 떠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살지,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끌고 가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의 경고를 끝까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깊이 숙고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6장 1-11절

찬송: 309장(통409장), 310장(통410장)

간직할 말씀 :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호 6:1-3).

주제 :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 실수와 오류에서 백퍼센트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 실수와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를 이혼하고 갈라서듯이 혹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끊어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거나 안보거나 관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다시 찾지 않거나 안보거나 관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지 않거나 안보거나 관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행한 짓이 얼마나 어긋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돌아와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일 것으로 믿고 추종한 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애 막판에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이 바라던 다윗의 자손에 대해 예수님께 적지 아니 실망과 회의를 느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이 흩어진 것이나 베드로와 유다가 배신한 것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삶의 향방을 가른 것은 ‘회개’와 ‘회개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몹시 기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 6:1).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에서 ‘찢다’와 ‘도로 낫게 하다’ 그리고 ‘치셨다’와 ‘싸매어 주다’는 유대교인들의 정결법(tohorot)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간음을 행한 자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셨으나 회개하고 돌아가면 정결케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랍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treyf) 것, 정한(kosher) 것, 거룩한(kadosh) 것으로 나눠놓고 부정(不淨)한 것을 멀리하고 정(淨)한 것을 가까이 하여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 모든 식품을 유제품(Dairy)과 육류(Meat)와 그 밖의 식품(Pareve)으로 나눠놓고 그것들을 담은 용기와 조리하는 기구들도 유제품용과 육류용과 그 밖의 식품용으로 철저히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나 기구들은 색깔로 구별되는데, 파랑은 유제품, 빨강은 육류, 초록은 그 밖의 제품에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것들을 ‘트레이프’(treyf)라 부릅니다. ‘트레이프’란 문자적으로 ‘찢긴’이란 뜻인데, 다른 동물들에 찢긴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유래했습니다(출 22:31, 레 7:24, 겔 4:14).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은 613개의 계명들(Mitzvot)과 규례(계명의 율타리법들, Gezairoth)를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부정(不淨)한 것 곧 ‘찢긴’ 것에 해당됩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하게 된 후에도 ‘도로 낫게 하다’와 ‘싸매어 주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정결법(tohorot)입니다. 대표적인 정결법에는 손 씻기(Yadayim), 그릇 씻기(Keilim), 음식조리(Kashrut) 등이 있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출 23:19, 34:26, 신 14:21)는 계명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섞거나 함께 씻거나 함께 조리하거나 함께 보관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찢긴’ 혹은 부정하게 된 후에도 정결절차를 이행하면 부정(不淨)한(treyf) 것이 다시 정한(kosher)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식기류(Keilim)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침례(Tevilat)를 행하여야 합니다. 침례에 가장 적합한 물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호수나 바다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근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정결의식용으로 사용합니다. 2019년 3월에는 서울 남산 인근에 유대교 의식용 침례탕(Mikvah)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개종 침례와 새로 구입한 식기류의 침례이외의 침수정결의식은 일회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물속에 잠기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몸에 붙인 반창고 같은 것들은 물속에 잠기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또 유대교의 정결의식의 특징은 문자 그대로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의 경우 중도에 물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주전자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손등과 손바닥 및 손가락 끝과 손톱 속까지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한 번에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씻거나 중도에 물이 끊기거나 다른 손이 닿거나 하면 무효입니다. 식기류의 정결의식은 더 까다롭습니다. 유제품(Dairy)과 육류(Meat) 및 그 밖의 식품(Pareve)을 조리할 때 이들 세 가지 제품을 위한 각각의 전용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별도로 비치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사용하고, 씻을 때에도 섞이지 않게 엄격히 구분하여 전용 싱크나 개수대에서 씻어야 하며, 전용 식기 건조대나 수건은 물론이고, 이들 조리기구들과 식기류를 보관하는 전용 찬장과 공간을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섞었거나 하여 부정하게 되면 정화해야 합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미디안과 싸

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정결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22-23절에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는 계명이 실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근거하여 새로 구입한 식기류와 부정하게 된 식기류를 재질에 따라 정화한 후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불에 타지 않는 식기류는 불로 지진 후에 물에 담갔다가 꺼내 쓰고, 불에 타는 식기류는 물에만 담갔다가 꺼내 쓰는데, 당연히 정한 음식에만 사용합니다. 유제품과 육류제품이 섞이기 쉬운 스토브를 정화할 때에는 토치를 사용하곤 합니다. 싱크 안쪽 같은 데는 끓고 있는 물을 부어 지킵니다. 여기서도 물이 끓기면 안 됩니다. 들통을 이용하여 완전히 잠기게 한 후에 끓여서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정화는 토치나 끓고 있는 물로 지지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유제품전용과 육제품전용을 구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메시지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정화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싸매줄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 6:2-3).

2-3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속함과 충족함을 말합니다. 죄인일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완전히 회복시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틀”과 “셋째 날”을 때로 이해하여 “이틀”을 이집트와 바빌론으로, “셋째 날”을 로마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틀”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으로, “셋째 날”을 모쉬아크(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질 온전한 성전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랍비들도 종종 알레고리적 해석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존전(尊前)에서 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지파별로 텐트를 칠 때에는 동서남북 중앙에 성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서 피어오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이동시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생활의 삶은 배고프고 목마르며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숙명인 결핍과 갈구로 울부짖고, 백번의 거룩한 말씀보다 단 한 번의 어쭙잖은 기적에 더 끌리며, 가혹한 현실에 방황하며 울고 신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황금송아지에 더 끌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애’라는 것을 확실히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3절에서 “새벽 빛”이나 “늦은 비”와 같은 것은 자연현상으로써 변함이 없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밤이 깊으면 반드시 날이 밝듯이, 또 보리와

밀 수확을 앞두고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면 풍년이 들듯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인데다가 비가 주로 겨울에 내립니다.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고 늦은 비는 늦겨울에 내립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보리 수확이 시작되고, 오순절 즈음에 밀 수확이 시작됩니다. 수확시기에 앞서 늦겨울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준다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3.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호 6:4-11).

선지자 호세아는 4-5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어야 할 인애(헤세드)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의 관심이 음행과 향락에 집중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다고 했습니다. 설사 그들에게 인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었고 이제 그 날이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다가왔으며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6-7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토라)의 핵심을 두 가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행위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기에 급급했었다는 것을 반영한 말씀인 것입니다. 8-9절에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는 인애를 베풀어야 할 곳에서 제사장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이 도피성이 있는 ‘길르앗 라못’인지, 길르앗의 중요 성읍인 ‘미스바’인지 혹은 길르앗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곳이 ‘길르앗 라못’이라면, 이곳은 ‘세겜’과 함께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던 성읍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베풀어져야 할 곳에서 그것도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악행을 하며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행이 남북 이스라엘 모두한테서 발생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경고입니다.

인간의 문제점은 인애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애가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정말로 허기를 느끼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인애의 굶주림입니다. 인애가 베풀어지는 곳에 배고픔은 사라집니다. 인애는 빈말과 빈손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자기희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심판과 저

주와 징계를 말씀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도 많은 재앙과 저주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의 끈, 믿음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최후 승리와 황금 월계관과 영원한 삶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인 글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긍정에 있고 부정에 있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구원에 있고 저주에 있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빛과 질서와 생명에 있고 어둠과 혼돈과 죽음에 있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6장의 핵심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것이 예언이고 권면이며 설교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은 미래적이기보다는 현재적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now, here)입니다. 지금 여기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고칠 방안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혹은 왜, 우리가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히 4:16) 수 있는지를 말해봅시다.
2.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신학지식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알자는 것입니다. 신학박사인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깊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벧전 4:8)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말해봅시다.

제7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7장 1-16절

찬송: 255장(통187장), 259장(통193장)

간직할 말씀 :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호 7:7).

주제 :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 앞에서

호세아 7장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인 정국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제국들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자기들이 의지하려던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호세아 뿐 아니라 다른 구약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제국들에 의지하여 안보를 보장받으려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주전 722년에 망한 후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졌고,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국이 망한 후에도 다윗왕국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라(계명, 율법) 준수와 혈통 보존과 더불어 하루 세 번씩 회당에 모여 기도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최소인원(minyan)을 가장 열 명으로 정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기도회 때

서서(Amidah) 드리는 기도문(Berachot)을 ‘쉐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라 부릅니다. ‘18’이란 뜻인데, 주후 90년경에 한 개가 추가된 후 19개의 기도문(Berachot)을 매일 세 번씩 반복적으로 낭송합니다. 기도문들의 내용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시대 직후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유대인들의 이 기도문들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낭송하도록 권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호 7:1-3).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에서 “치료”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회개운동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긴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회개운동을 대언(代言)한 자들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를 말한 것으로서 나라 전체가 썩고 부패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죄악을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유행위 곧 선지자들의 회개운동을 거부하였습니다.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다 녹화해놓고 계신데도 정작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행을 생각조차 안하고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황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성령이신 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알산당에서 펼쳐지는 바쿠스축제와 같은 육체적 쾌락과 포도주에 취해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악행이 왕과 지도자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3절). 왕과 지도자들이 그 같은 악행을 기쁘게 생각한 이유는 자기들이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때문이라고 국방이 튼튼한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현실은 메가 태풍이 불어오기 전 고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 닥치기 직전의 잠시 동안의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폼페이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며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베수비오 산 분화구에서는 용암이 끓고 있었고 폭발 직전에 있었지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 속이 용암으로 끓고 있었고 폭발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천사)들 이외에 그 다급함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며 온갖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롯과 그의 가족도 몰랐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유향불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기막힌 구원의 체험이 롯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많지 않았나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망각의 강을 건넌 듯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기억나게 하소서. 애지중지 해온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빌린 것이요 저의 것이 아님을 기억나게 하소서. 그것들은 단지 제 삶을 빛내라고 잠시 쓰게 한 것임을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 치매에 걸린 듯 그 오랜 주님의 자비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오랜 자비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수렁에 빠져있었는지 제 생애영상을 되감아 보여주

소서. 주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그 오랜 주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의 그 오랜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저를 택하셨고, 주님 자신의 축복들을 제게 주셨으며, 대신에 저의 저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에 오르셨습니다. 주님, 기억나게 하소서. 생애영상을 되돌려 제가 어떤 수렁에 빠져있었는지, 제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제 생애영상을 되감아 보여주소서.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의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 <복음송 “Remind Me, Dear Lord”의 가사 참고>

2.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호 7:4-7).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인 동시에 실제로 바알산당에서 이뤄진 예배자들과 성창들과의 육체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미신적 종교의식 때문에 당대에 성병이 많이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지 40여년이 지났을 무렵에 농경문화의 관문인 모양평지 싯딤에 이르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꾀에 속아 브올(Peol) 산의 바알산당 축제에 참가한 직후에 2만 4천명이 염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민 25:1-9, 31:16). 이는 히브리인들이 바알산당에서 성창들과 함께 바알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병은 성창들한테서 옮긴 성병으로써 성적으로 깨끗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혹은 히브리인들이 사막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올은 이 때 죽은 자들이 2만 3천명이라고 하였는데, 칼에 도륙당한 자들 1천명을 뺀 숫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염병이 번진 싯딤은 사막문화권이 끝나고 농경문화권이 시작되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예로부터 항구도시에는 홍등가가 발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농경문화권의 첫 관문인 이곳 싯딤에서 바알종교 의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알(Baal)은 비(정액)와 폭풍의 신이었고, 아스다롯(Astaroth)은 땅(자궁)의 풍요와 생식의 신이었으며, 바알로부터 정액(비)를 받아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바알산당이나 아스다롯산당에서 사제(성창)들과 살을 섞곤 하였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여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배행위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매혹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는 모습도 없고, 모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여사제도 없었습니다. 이런 메마른 종교의식에 식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숭배에 빠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끝없이 부딪쳐왔던 유혹이 바로 바알숭배였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의 발등상으로 착각하게 할 황금송아지가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그리스의 타락한 소돔성이 됐던 데에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가 있었다면, 그녀의 배경에 아스다롯(Ashtoreth)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유사한 여러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각각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교의 특징은 향락문화에 있습니다. 돈(money)과 성(sex)을 섬기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바알종교입니다. 돈과 성은 현대인들이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 같

은 현상을 4-7절에서 “달귀진 화덕과 같도다”고 하였고, “그들(의 마음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죽어 가는데도)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따뜻해져 끓게 되는 물속에서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탈출하지 않는 현상과 같았습니다.

3.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앓음이니라”(호 7:8-16).

8-17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장차 패망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 곧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성심으로 부르거나 찾지 않았으며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피하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같은 악행을 멸망을 앞두고 나타난 전조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으로만 읽는 사관(史觀)이요, 둘째는 정세로만 읽는 사관이며, 셋째는 정세와 신앙 모두로 읽는 사관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예언자들은 그 이유를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가볍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심한 경우 멸망까지 시키셨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앙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또 많은 경고와 회개촉구가 있는 후에 닥쳤습니다. 재앙에 대한 전조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 전조를 읽는 패러다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신앙만으로 읽고 해석하는 틀(패러다임)이고, 둘째는 정세나 지정학적 관계에서만 읽고 해석하는 틀입니다. 셋째는 정세의 흐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읽고 해석하는 틀입니다. 이 세 번째 틀(패러다임)로 국제정세를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조를 해석한 사람들이 이사야, 호세아, 우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국제정세나 지정학적 탓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나라를 원상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국제정세나 지정학적 탓만으로 보았다면, 회복운동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600여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의 나라에 대한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근거가 바로 이들 예언자들의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 또는 시내산 언약에 판단기준을 둔 진단과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역대기 사가(史家)들이 내린 처방 또는 유대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법에 있습니다. 토라(계명, 율법,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혈통을 보존하면, 비록 지금은 나라와 영토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영원한 것이라고 처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나라와 영토를 빼앗긴 이후 나라가 없는 유랑민(Wandering Jews)으로 산지 무려 2534년이 지난 주후 1948년 5월 14일에 고토를 되찾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상상 속에서조차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을 마치며

수많은 제국들과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국 중의 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작은 나라이고 여전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보다 IT기술과 농업이 발달한 GNP가 더 높고 더 잘사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어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 미래가 보장될지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는 길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냐와 스마야처럼 세상사를 신앙의 눈만으로 봐서도 안 되고, 세속인들처럼 정세의 흐름만으로 봐서도 안 되며, 이사야, 호세아, 예레미야, 우리야처럼 정세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읽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회개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호세아,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희망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민족은 역사에 살아남고 교만한 민족은 반드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선지자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은 하나님의 계명(토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옳고 그름 곧 믿음과 실천의 판단기준은 성경말씀이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2.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회개와 끈질긴 인내와 믿음과 희망은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가 없는 인내, 회개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희망이 가능한지를 따져봅시다.
3.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봅시다.

제8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 호세아 8장 1-14절

찬송: 535장(통325장), 531장(통321장)

간직할 말씀 :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호 8:6).

주제 :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말씀 앞에서

호세아서 8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경고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였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로잡아다 이방나라들에 흩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재건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은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기 3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고 있을 동안은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고”(욘 3장) 회개한 사건과 같은 일이 매우 슬프고 불행하게도 흔치않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패망하고 맙니다(잠 16:18).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인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끝내 회개하지 아니한

까닭이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선지자들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내린 처방은 회개였습니다. 병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영웅이나 제국을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의 적이 바로 교만과 오만, 사치와 향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멸망의 원인은 국제 정세변화를 읽지 못한 외교적 패착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젊은 호랑이 아시리아(지금의 이라크지역)의 서진정책을 막기 위해서 늙은 호랑이 아람(지금의 시리아지역)과 동맹을 맺고, 주변국들인 모압, 암몬, 에돔, 남유다왕국에 사신을 보내 동맹에 가입할 것을 압박하며 보복침략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에 닥친 끔찍한 결과는 하나님이 내린 보응 때문이 아니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혹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롬 1:18-32).

말씀을 나누며

1.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도”(호 8:1-7).

1-7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와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도.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는 북이스라엘을 덮쳐서 쓸어버릴 큰 전쟁이 있겠으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으실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황금송아지를 세우고 일컬어 여호와와 발등상이라고 말하며 입 맞추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나 실상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알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신이 아니라, 장인이 붓고 새겨 만든 죽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군의 손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神)의 이름으로 싸우는 대리전이기에 때문에 전쟁에 패하면 자국의 신도 패하여 적군의 신에 흡수되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후 이집트의 신 ‘아문’(아몬, 암몬, 아멘)을 접수하였고 그리스의 신 제우스와 합쳐져 ‘제우스-아문’이 되었으며,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퀴루스)가 바빌론을 점령한 후 바빌론의 신 ‘마르дук’을 접수하여 ‘벨-마르дук’이 되었고,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 아버지 신 ‘엘’을 접수하여 ‘야훼(여호와)-엘’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로마에서 제우스와 주피터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아시리아 혹은 바빌론에 패했을 때 선지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

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미쁘시고 선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패망한 지 2500여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고토에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2.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호 8:8-10).

8-10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는 이스라엘이 결국 처참한 꼴이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혔고, 쓸모없게 되었으며, 홀로 떠도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 조공을 바치며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가증한 짐에 짓눌려 결국 쇠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라도 형틀에 부어 만들거나 조각칼로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출 20:4, 34:17).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벤엘 성소와 단 성소에 세운 황금송아지는 그것이 여호와와 발등상이었을지라도 아론의 황금송아지가 그랬듯이(출 32:4)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형틀에 부어 조각칼로 새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법궤 뚜껑에 세운 케류빔이나 메노라(등대)는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 쳐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전체가 한 덩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출 25:18, 37:7, 22, 39:3, 민 8:4).

왜 아론이나 여로보암은 황금송아지를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송아지(황소)는 고대근동에서 신들의 발등상(보좌)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게다가 송아지로 상징되었던 가나안의 최고 신 ‘엘’이 이집트와 사막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와 통합된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눈에 보이는 뭔가로 형상화시킬 강한 백성의 욕구를 채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황금송아지를 제거시킨 직후에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으로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신 10:1-5).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형틀에 붓고 조각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발등상(보좌)으로 만든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불법 형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뭔가를 눈으로 봐야 확신하고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황금송아지에 입까지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호 13:2).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 예후조차도, 황금송아지를 치우지 않았고 치울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 황금송아지를 문제 삼았던 주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합법 성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불법으로 여긴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에 있지 않고 당대 근동세계의 종교문화에 동화된 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난 후 남유다의 엘리트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방인 종교문화에 동화되는 순간 유대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혈통을 유지하는 것만이 비록 나라가 망해서 영토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한지 2500년을 넘긴 1948년 5월 14일 기어코 나라를 그

것도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의 땅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아지 등에 올라선 ‘아다드’(Adad) 혹은 바알 부조(浮彫), 송아지 등에 올라선 금박(金箔)에 새겨진 여신 아스다룻 등이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여전히 몇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송아지 혹은 황소는 엘과 바알 및 아스다룻의 발등상으로 세워졌으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종교 곧 엘과 아세라 및 바알과 아스다룻을 숭배하는 것에 별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소(숫소)는 바알이나 아버지 신 엘의 상징으로 암소는 아스다룻의 상징이었습니다. ‘엘’(El)은 히브리어 문자 ‘E’(알렙)와 ‘L’(라메드)로 되어 있는데, ‘E’(알렙)는 황소를, ‘L’(라메드)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5-6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송아지는 장인이 만든 것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외침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추정컨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종교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라고 해서 바알종교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냥 우상숭배였던 것이지, 혼합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와의 발등상이 황금송아지(황소)였던 데다가 바알종교의 ‘엘’의 발등상도 송아지(황소)였기에 ‘엘-여호와’(“El Elohim YHWH”=“엘 엘로힘 야훼”=“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 22:22)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리라 추정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에서 살아남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야훼)를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그 지역 최고 신 혹은 아버지 신인 ‘엘’로 부르거나 ‘엘’을 여호와로 바꿔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에 ‘엘’이 쓰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였으므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지의 신은 정복자의 신에 통합되곤 하였습니다. 두 다른 최고의 신들이 통합된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문화가 통합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배지 국민들의 동화를 끌어내는데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p>황소(발등상) 등에 올라선 바알(Baal) 혹은 아다드(Adad/Hdad)가 번개를 휘두르는 모습 (시리아 북부 아르슬란 타쉬(Arslan Tash)의 아시리아 비석(8 BC, 루브르 박물관). 바알/아다드=황제)</p>	 <p>황소(발등상) 등에 올라선 바알 혹은 아다드(하다드)를 묘사한 테라코타. (주전 18-16세기, 이라크 술레이마니아(Sulaymaniyah) 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소(발등상) 등에 올라선 신상은 황제였을 것이다. ● 황제는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는 수호 신이었다. 	 <p>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룻</p> 

은 ‘엘’의 부인으로 알려진 ‘아세라’와 자식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는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알산당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각각 비와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로서 산당에서는 이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성창들과의 간음이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북이스라엘 곳곳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바알산당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장(章)입니다.

3.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호 8:11-14).

11-13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이 여호와께 제사를 바치지 않았던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았던 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13장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데 있었습니다. 이방종교에 동화된 데에 있었습니다. 참된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구별하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출 20:4, 34:17). 히브리어로 “새긴 우상”을 ‘페셀’(pesel)이라 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마세카’(masecha)라고 합니다. ‘마세카’라는 명사는 성경에 12회 정도 언급되었는데 하박국 2장 18절만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명사로 번역되었고 나머지 11회 정도는 ‘마세카’를 동사로 번역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다’라고 옮겼습니다. 소개한 호세아 13장 2절에서도 “우상을 부어 만들되”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론이 시내광야에서 형틀에 붓고 조각칼로 새겨 만든 황금송아지를 세운 이후 하나님은 성막의 성구들 중에 운반막대를 끼울 고리와 같이 부득이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들겨서 쳐서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점이 이방종교의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과 크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가나안의 신들인 ‘엘’, ‘바알’, ‘아스다롯’의 발등상이었던 송아지를 여호와의 발등상으로 만든 것이었고, 게다가 그 송아지들이 형틀에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새긴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만들도록 지시하신 발등상 또는 보좌는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준 두 개의 돌판이 담긴 법궤 곧 황금박(黃芩箔)으로 감싼 나무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의 결과에 대해서 호세아는 나라가 처참히 붕괴되고(14절) 사로잡혀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13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행하였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씀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 무려 10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속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4세기 이후 18세기 말까지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모두 국교이거나 시의회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채택된 1791년 12월 15일 이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종교와 바알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호와-엘’ 곧 ‘여호와 곧 엘’ 종교통합 혹은 혼합종교 때문에 바알종교에 동화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듯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를 거의 알지 못하고 또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매우 무지합니다. 이 무지 곧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이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 안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교가 신약성경교회여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교회들의 ‘환원운동’ 곧 ‘신약성경교회운동’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의식(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약식세례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후 츠빙글리와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에 의해서 바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약식세례를 적극 지지한 나머지 재침례 교도들을 처형한 이유는 그들이 국가종교 또는 시의회종교의 지속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침례가 성경적인 의식이란 것을 몰라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츠빙글리는 가톨릭 미사와 주의 만찬의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사의 미신적인 면만 보고 주의 만찬을 일 년에 네 차례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한 세대 후에 칼뱅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여겼으나 시의회종교의 권력인 시의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나 예레미야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국가 패망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권력이 귀를 틀어막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2. 큰 교회, 큰 교단, 큰 지도자가 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 어마하게 큼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우리가 따라야할 기준인 것처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성막제조와 관련해 볼 때 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였는지를 생각해봅시다.
3.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외교정책실패가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적 실패의 근본은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과 충고를 철저히 외면할 뿐 아니라 탄압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실패를 경험했던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